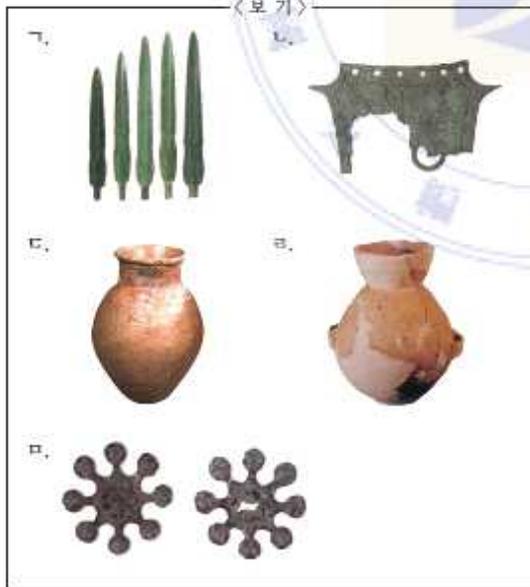


1. 지도에  로 표시된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고조선의 유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바  
 ④ 나, 마      ⑤ 가, 다, 마

정답: ②

\* 청천강 이남의 고조선 유물

• 색깔 표시된 지역은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의 지역이다.

㉠ 세형 동검: 청동기 시대 후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로 한반도 청천강 이남에서 발견된다. 다뉴경(多鈕鏡: 잔무늬 거울)·소동탁(小銅鐸)·동모(銅矛)·동과(銅戈) 등과 함께 발견되는 고조선시대의 대표적 유물.

㉡ 농경무늬 청동기(대전 괴정동 출토): 제사에 쓰였던 기구로 추정된다. 제사 기구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의 농업이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팽이형 토기: 초기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하여 크게는 랴오둥-한반도의 서북지방 일대가 하나의 문화권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표지적 유물이며, 나아가 같은 시기 랴오둥-청천강 유역에 걸치는 미송리형 토기 문화와는 또 다른 서북한(청천강~대동강) 지역만의 토착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 미송리식 토기: 주로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하는 청동기 시대의 토기이다. 이 토기는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함께 전기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간주된다.

㉤ 팔주령 청동 방울: 의기(儀器)의 일종으로 청동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다. 한 쌍을 이루며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2. 다음 삼한 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경남 창원시 다호리 유적지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초기 철기 시대 유적지로, 붓, 통나무관, 그리고 식용의 감과 울무 등이 출토되었다.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  
기원 전후 시기 마한 사람들의 생활 유적지로, 어린이를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독무덤이 1960년대에 다수 발견되었으며, 30여 년 뒤에 다시 발굴이 이루어져 악기, 배틀 부속 도구인 바디, 수레 부속 도구, 인분과 기생충 알 등이 확인되었다.

< 보기 >

ㄱ. 한자 사용	ㄴ. 옷감 생산
ㄷ. 현악기 사용	ㄹ. 중국과 문물 교류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 철기시대의 경제.사회

■ **창원 다호리 유적:** 붓이 나왔는데 이는 한자의 전래와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광주 신창동 유적:** 악기, 배틀이 나오므로 보아 옷감 생산과 현악기 사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철기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 시대로 접어 들었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다.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쓰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화하였다.

한편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중국 화폐인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을 통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나온 붓은 당시에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5월에 고려 대왕 상왕공(相王公)은 신라 매금(寐錦)과 세세토록 형제처럼 지내기를 원하였다. ……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 상하(上下)에게 의복을 내리라는 교를 내리쳤다. …… 12월 23일 갑인에 동이매금(東夷寐錦)의 상하가 우벌성에 와 교를 내렸다.

< 보 기 >

- ㉠.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성과를 기록한 비문 내용의 일부이다.
- ㉡. 이 내용이 기록된 비석은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남아 있다.
- ㉢.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 ㉣.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하여 그 영향권 내에 두려고 했던 사실을 전해 준다.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

정답: ②

\* 중원 고구려비(장수왕): 충북 충주 소재

비문에서는 고려 대왕과 신라 매금왕(寐錦王)이 형제처럼 위아래로 화합하여 '수천'(守天)하자는 구절이 있다. 수천은 천도(天道) 또는 천제(天帝)의 뜻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이다. 또 고구려왕이 남하하여 신라왕을 부른 뒤 신라왕과 그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 종주국으로 자처하고 있음.

비문에서 고구려는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중화'(中華)로 여기는 의식을 전제로 하여 나온 표현으로, 당시 고구려는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변 국가나 종족들을 조공국과 같이 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군사지휘관이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도 비문 속의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된다. 이때 고구려의 군사지휘관이 주둔하고 있던 신라 영토는 중원 지방이 아니라 소백산맥 이남의 경상북도 지방으로 추정된다

- ㉠ 광개토대왕릉비의 내용
- ㉡ 광개토대왕릉비의 위치

4. 다음은 부여 지역의 주요 유적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목탑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명문이 새겨진 사리함이 출토되었다.
- ② (나) - 도교 사상의 영향을 보여 주는 산수무늬 벽돌이 출토되었다.
- ③ (다) - 백제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 주는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④ (라) - 무왕 때에 만들어진 왕실의 연회 장소로,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다.
- ⑤ (마) - 왕실 묘역으로 사신도와 연화무늬가 그려진 고분 벽화가 발견되었다.

정답: ④

\* 백제 부여 유적군

부여 유적군을 모두 다 알기는 힘들다. 단, 왕흥사지, 정림사지, 능산리 사지는 꼭 알아두고 각각에서 출토된 사리장엄, 5층 석탑, 금동대향로는 꼭 알아야 할 것이다

① 왕흥사지: 577년에 백제 위덕왕이 자신의 죽은 왕자를 위하여 절을 창건한 절로서 탐지와 금당지가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된 '1탑 1금당식'이며 이는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배치 구조이다. 2007년 10월 10일 왕흥사지터에서, 백제 시대 사리 장엄구를 발견하였다.

② 규암면 외리 사지: 도교적 영향을 보여주는 산수무늬 벽돌 발견.

③ 정림사지 5층 석탑: 미륵사지 5층 석탑을 계승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전체가 장중하고 명쾌하여 격조 높은 기품을 풍기고 있다.

④ 궁남지: 백제의 별궁 연못으로서, 궁남지의 조경 기술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

•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 절터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⑤ 능산리 고분군: 1호분에서 사신도 벽화가 발견되었고, 2호분은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 능산리 사지에서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이 발견되었다

5.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질 당시 백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관동제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② 마한을 정복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③ 관록(觀勒)이 일본에 건너가 천문, 지리, 역법 등에 대한 서적을 전하였다.
- ④ 22담로를 설치해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백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⑤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고,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다.

정답: ③

\* 백제 미륵사지 5층 석탑과 서탑 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무왕 시대)

**무왕**(재위 600-641): 서동 설화의 주인공이고, 600년 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신라와 자주 충돌하였다. 재위 기간 중 신라의 아막산성, 가잠성, 모산성, 늑노현, 주제성과 신라 북서쪽의 두 성과 서곡성·독산성 등을 공격하였다.

한편 무왕은 고구려의 남진을 견제하기 위해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여러 번 고구려 공격을 청하였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한 뒤에도 친선 정책을 전개하였다. 624년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당 고조로부터 대방군왕 백제왕(帶方郡王百濟王)이라

는 칭호를 받았다. 627년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 침공을 시도하였으나, 당 태종이 백제와 신라의 화친을 권유했으므로 이를 중지하였다.

무왕은 관록을 일본에 파견하여 천문, 지리, 역법 등에 대한 서적과 불교를 전달하였다. 630년 사비 왕궁을 수리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해 중지하였다. 634년 왕흥사를 창건하고(최근에 577년 위덕왕 때로 수정됨), 궁남지를 건설하였으며, 미륵사를 건설하는 등 토목공사를 자주 벌이고 신라와의 전쟁이 잦아 국력이 소모되는 등 실정이 잦았다.

①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3세기 중엽).

②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에 마한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다. 또,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정복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

④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6세기 초).

⑤ 성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고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6세기 중엽).

6. 다음은 통일 신라 시대의 연표이다. (가)~(마) 시기의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3 점]

676	681	768	822	889	935(년)
(가)	(나)	(다)	(라)	(마)	
삼국 통일	김춘추의 난	96각간의 난	김헌창의 난	원종·애노의 난	신라 멸망

- ① (가) - 인제 양성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② (나) - 녹읍을 폐지하였다가 귀족들의 반발로 복구하였다.
- ③ (다) - 장보고가 청해진을 개설하고 왕위 계승전에 참여하였다.
- ④ (라) - 내물왕계 진골 귀족들에 의해 왕위가 계승되기 시작하였다.
- ⑤ (마) - 당에 유학했던 승려 도의가 돌아와 선종을 파급시켰다.

정답: ②

\* 신라의 시기별 정세(중.하대)

(가) **문무왕~신문왕**: 문무왕의 삼국 통일과 신문왕의 귀족 숙청을 통한 가장 강력한 전제 왕권의 출현

(나) **신문왕~혜공왕**: 신문왕 때의 전제 왕권(녹읍 폐지)이 경덕왕 때부터 귀족들의 반발로 조금씩 약화됨(녹읍 부활)

(다) **혜공왕~헌덕왕**: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으로 더욱 약화된 왕권. 선덕왕 이후 내물왕계 국왕 출현. 이에 대한 무열계 진골 귀족의 반란(김헌창의 난, 김법문의 난)으로 인한 지방에 대한 통제 약화

(라) **헌덕왕~진성여왕**: 장보고 해상 세력의 중앙 권력 쟁탈에 개입(흥덕왕~문성왕). 귀족의 사치와 호족들의 조세 수취로 인한 중앙의 재정 궁핍과 세금 독촉으로 인한 농민 반란(원종·애노의 난).

(마) **진성여왕~경순왕**: 호족들의 득세와 후삼국 분열. 더욱 약화된 왕권으로 박씨 국왕 출현(신덕왕, 경명왕, 경애왕)

- ① 독서삼품과 실시: 원성왕 4년(788년)
- ② 녹읍 폐지(689, 신문왕)와 녹읍의 부활(757, 경덕왕)
- ③ 장보고(?~846)의 청해진 설치(828)
- ④ 내물왕계의 재등장은 선덕왕(780~785) 때 부터
- ⑤ 도의의 귀국(821)과 선종의 유행

7.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잘못 대답한 학생은? [1 점]



교사: 이것은 사천에 있는 매 향비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갑돌: 향도에서 세웠습니다.  
교사: 향도는 어떤 조직으로 시작되었죠?  
을순: 불교의 신앙 조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사: 향도는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병태: 불상이나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사: 고려 후기에는 향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정희: 마을 노역, 상장례, 마을 제사 등을 주관했습니다.  
교사: 조선 시대에 향도에서 유래한 것을 말해 보세요.  
무한: 향약을 들 수 있습니다.

- ① 갑돌                      ② 을순                      ③ 병태  
④ 정희                      ⑤ 무한

정답: ⑤

\* 고려.조선 시대의 농민 공동 조직 **향도**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는,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이라고 한다. 이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하였다.

향도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⑤ 향약은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으로서 섬서성 남전현 여씨 문중에서 만들었으며, 뒤에 주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주자여씨향약(朱子呂氏鄉約)>이 만들어졌다. 조선 중종 12년(1517)에 김안국과 사림의 대표인 조광조에 의해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후일 이를 토대로 이항의 <예안향약(禮安鄉約)>, 이이의 <서원향약(西原鄉約)>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향약은 불교에서 유래한 농민공동조직인 향도와는 전혀 맥을 달리 한다.

8. 다음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고려 시대 경상도의 한 고을에 사는, 직역이 없는 양인인 갑(甲)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민전을 가족들과 함께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그의 민전을 관료인 병(丙)에게 과전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직역이 없는 양인인 을(乙)은 소유하고 있는 농토가 없어 국유지를 빌려 농사지었다.

< 보기 >

- ㄱ. 갑은 병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쳤다.
- ㄴ. 을은 수확량의 2분의 1을 국가에 바쳤다.
- ㄷ. 갑과 을은 모두 백정(白丁)이라고 불렸다.
- ㄹ. 갑과 을은 모두 주진군에 편입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고려 시대 양인(백정)에 대하여

• 같은 직역이 없는 양인인 백정 농민이고 그의 사유지 민전이 있지만 관료의 과전에 지급되었으므로 생산량의 1/10을 관료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 민전이 과전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1/10은 국가에 세(稅)로 내야 한다.

• 을도 같은 백정 농민이지만 공전인 국유지를 빌려 경작하므로 1/4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만약 농민이 공전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토지(순수한 의미의 사전)를 빌려 경작한다면(소작), 보통 1/2을 조(租)로 소유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㉞ 경기와 5도의 일반 군현(서해.양광.교주.경상.전라)에는 주현군이 주둔하고 국경 지대인 양계(북계.동계)에는 상비군인 주진군이 주둔한다. 주진군은 좌군·우군·초군으로 구성되어 국경 수비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경상도에 사는 양인은 주현군 대상이다

9. 다음 글의 밑줄 그은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2점]

그는 고려 시대의 성군(聖君)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고려의 여러 문물 제도가 완비되고 학문이 발달하였으며, 사회가 안정되었던 것이지요. 중앙에서는 내사문하성을 중서문하성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6부의 상서 위에 판사를 두고 2품 이상의 재상들이 이를 겸임하도록 하여 국정의 논의와 행정의 실무를 맡도록 한 '6부 판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지요. 지방 제도로는 개성부가 다시 복구되어 수도인 개성 주위의 경기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의 정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습니다.

- ①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의 호족 세력을 통제하였다.
- ②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군사 조직인 광군을 편성하였다.
- ③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공음전시법을 제정하였다.
- ④ 관료들의 관품과 인품을 동시에 고려한 전시과 체제를 마련하였다.
- ⑤ 호장과 부호장을 상충부로 하는 향리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정답: ③

\* 고려 문종의 업적 (1046~1083)

고려의 성종이 문물 제도의 토대를 확립했다면 문종은 이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왕이다. 즉 이 문제에서 가장 힌트가 되는 것은 고려의 최고 중앙 관부인 중서문하성의 명칭 확립이다.

본래 내사성(內史省)은 조칙(詔勅)에 관한 일을, 문하성(門下省)은 왕명 하달과 중신들의 건의를 담당하다가 두 성(省)의 관계가 밀접하여 성종 때에 통합하여 내사문하성이 되었다(982).

문종 때에 내사성을 중서성(中書省)으로 개칭함에 따라 중서문하성으로 고쳐지며 (1061) 고려의 중앙 정치가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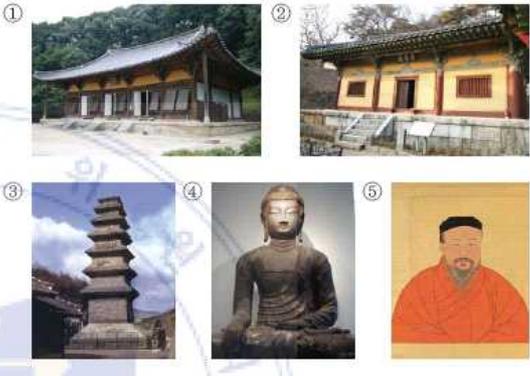
또한 문종은 경제적으로 전시과 제도를 완성하였다. 이는 5품 이상의 모든 문·무 양반 양반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공음 전시법 (1049) 제정과, 기존 전시과의 수급 대상자던 산관(散官)이 배제되고 또 '한외과'도 과내(科內)에 편입되며 무산계(武散階)와 별사과(別賜科)에 대한 전시과를 규정한 경정 전시과(1076)로 나타났다.

- ① 태조 때에 김부(경순왕)를 최초 사심관으로 임명(935, 경주 지역)
- ② 거란을 대비한 특수 부대인 광군 편성(정종, 947)
- ④ 시정 전시과(경종, 976)
- ⑤ 향직 부여는 태조 왕건 때, 향리 제도 정비는 성종 때(983, 당대등->호장, 장대등->부호장)

10. 다음 답사 보고서에 첨부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답사 보고서**

- 성명 : ○○○○
- 기간 : 2009년 5월 2일(토) ~ 5월 4일(월)
- 답사 지역 : 영주 → 안동
- 답사 내용 :



정답: ④

\* 경북 영주와 안동의 문화 유산

영주의 부석사와 소수서원, 안동의 봉정사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 18호. 지정된 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배흘림 주심포 양식으로 유명하다. 전(殿) 내에 소조 아미타여래좌상이 유명하다.

②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15호. 경북 안동 서후면 소재.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으며 주심포 양식의 특징이 있다.

③ **안동 신세동 7층 전탑**: 국보 16호. 원형이 보존된 한국 최고(最古)의 전탑(벽돌탑)이다. 분황사의 탑은 모전석탑(벽돌 모양 흥내)이다.

④ **경기도 광주 춘궁리 칠불**: 고려 초기 대형 칠불로서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신라 불상 양식을 충실하게 따른 고려 초의 걸작품이다.

⑤ **영주 소수서원 안향 영정**: 소수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의 유현 안향의 사묘를 세우고 1543년(중종 38)에 학사(學舍)를 이건하여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이 이 서원의 시초이다. 1550년 후임 군수 이황의 건의에 의해 사액(賜額)되어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개칭되었다.

11. 다음 역사 신문의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역사 신문	
1198년 10월 10일	
<p>사회 소식 : 미수에 그친 노비들의 봉기</p> <p>지난 5월 17일, 개경의 흉곡 사에는 수백 명의 노비가 모였다고 한다. 만적이 주동한 이 모임의 목적은 노비들이 각자 자기의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소각하여 노비에서 해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모인 숫자가 적다고 판단한 주동자들은 거사 날짜를 연기하기로 하</p>	<p>고 헤어졌는데, 그 가운데 율학 박사 한충유의 노비였던 순정이 집에 가서 주인에게 이를 고하였다. 이로 인해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은 체포되어 산 채로 강물에 던져졌다. 한충유는 이 공로로 승진했으며, 동료들 배신했던 순정은 면천하여 양인이 되었다고 한다.</p> <p>문화 칼럼 : (가)</p>

- ① 천산대렵도 집중 분석
- ② 상감 청자의 인기 비결
- ③ 수시력 채용으로 인한 변화
- ④ 신편제종교장총록 발간되다
- ⑤ 문화 교류의 산실, 만권당을 가다

정답: ②

\* 고려 무신 정권기 만적의 난(1198) 시기의 고려 정세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 상감청자는 무늬를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상감청자는 강화도에 도입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1270)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① 공민왕(1351-1374)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다. 호복(胡服)을 입고 말을 모는 무사의 모습과 북종화(北宗畵)적인 풀의 묘사가 눈에 띈다.

② 본격적인 상감청자의 시작과 발전은 1170년 이후의 명종 시기와 관련 있었음 1202년에 작고한 명종의 智陵에서 나온 <靑瓷象嵌 枝紋대접>·접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③ 원의 역법으로서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파악한 역대 중국 역법 중 가장 정밀한 것으로 인정되며 충렬왕 또는 충선왕(1298, 1308~13 재위) 때 도입되어, 조선 세종 때에 칠정산 역법에 수정 적용되었다.

④ 신편제종교장총록(1090): 고려 시대의 승려 의천(1055~1101)이 편집한 중국과 한국의 불교 관계 저술 목록이다. 속장경간행과 관련이 있다.

⑤ 고려 충선왕(1298, 1308~1313)이 원나라의 연경에 세운 독서당으로 백이정, 이제현, 박충좌, 원의 조맹부 등이 교류하며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12.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그가 담당했던 업무는 왕의 명령을 해당 관청이나 관료에게 전달하고, 또 관청이나 관료들이 아뢰는 문서를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국정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하는 측근 관료의 기능도 하였다. 왕을 늘 가까이서 모시는 직책이었던만큼 정치적인 부담도 컸지만 대신 혜택도 많았다. 업무 자체의 성격상 늘 긴장해야 했고, 이들에 한 번은 숙직을 해야 했으므로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지만, 능력을 인정받으면 재신(宰臣)이나 추밀(樞密)이 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당시 관료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였다.

- ① 어사대의 관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 ② 화폐와 곡식의 출납 등 회계도 담당하였다.
- ③ 한림원에서 교서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 ④ 조선 시대의 승지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⑤ 귀족 정치의 특징이 드러나는 회의 기구에서 일하였다.

정답: ④

\* 고려 중추원 승선의 기능

중추원은 2급 이상의 관리인 추밀이 담당하는 기능과 3품 이하의 승선이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다.

추밀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며 중서문하성의 재신들과 함께 도병마사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중요 문제를 다루었다.

승선은 왕명출납과 숙위 기능, 즉 왕의 비서실 기능을 담당함(보기의 내용).

①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② 고려의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③ 한림원은 문한(文翰)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사립원, 예문관, 조선의 집현전, 홍문관으로 그 기능이 이어졌다

④ 승지(承旨)는 조선의 승정원(왕명 출납)의 관리이다.

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인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13.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3점]

(가)



(나)



(다)



(라)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④

\* 시대별 불교 문화유산

(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통일신라): 각 부분의 조각이 뛰어나며 살짝 들린 처마에서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조각 수법이나 건조 양식으로 보아 통일 신라의 전성기인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나) **서산 마애삼존불상** (백제): 계곡의 층암 절벽에 거대한 여래 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 입상, 왼쪽에는 반가 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다. 삼존 형식으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중국의 남북조시대 말기인 제.주 양식(齊周樣式)을 엿볼 수 있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운다.

(다) **가가미 신사 소재 수월관음도**(고려말 14C): 1310년(충선왕 2년)에 김우문(金祐文)·임순(林順) 등 화원들이 합작한 그림

(라) **고달사지 승탑**(고려 초: 10C 초): 전형적인 8각 원당형(圓堂形) 부도로 신라의 양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고려 시대 초기 부도이다

14. 다음 건축물을 창건할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사병을 혁파하고 갑사를 재조직하였다.
- ② 이종무의 지휘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③ 사립원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④ 진관 체제로 지역 중심 방어 체제를 수립하였다.
- ⑤ 명의 부당한 요구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답: ⑤

\* 조선 초기 건축물

왼쪽: 승례문, 오른쪽: 종묘 정전

**승례문:** 조선 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원래 이름은 승례문이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에서 볼 때 사다리꼴모양의 우진각지붕인데, 원래는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각지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승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처음 지은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견고한 수법과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조선 전기 건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이다.

**종묘 정전:**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 49위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건물 내부에 모실 신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옆으로 증축하여 가로로 긴 건물 형태가 되었다. 1395년(태조 4년)에 준공되었다.

① 태종 때(1400)에 사병 혁파와 갑사의 복립이 있었다.

② 세종 때(1419)에 왜구의 근거지 박멸을 위한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 있었다.

③ **사립원:** 고려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선왕 때(1298)에 이전의 문한서를 고친 것이다

④ 세조 때(1457)에 중앙의 5위, 지방의 진관 체제로 군제를 정비하였다.

⑤ 태조 때(1395)에 명과의 외교 갈등으로 정도전이 주도적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으나(1397), 왕자의 난(1398)으로 정도전이 제거되며 중단되었다.

15.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고려 사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양숙공의 만아들인 평장사 임경숙은 네 번 과거의 시험관이 되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문하에 서대를 찬 사람이 10여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장군이 3명, 낭장이 1명 있었다. 청년각의 학사 유경이 과거에 합격한 지 16년 만에 사마시를 주관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 찾아뵈었다. 평장사 임경숙은 태사로서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제상인 두 조카와 추밀인 두 조카, 그리고 여러 종제와 사위들이 모두 경대부로서 임경숙이 관장하였던 과거 시험에 합격자들과 함께 섬돌에 섰다. 유경이 합격자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뜰 아래에서 절하니…… 보는 사람이 모두 하례하고 찬탄하였다.

- 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이 확립된 사회이다.
- ②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이다.
- ③ 좌주·문생 관계가 관직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 ④ 서원에서 형성된 학연이 관직 진출에 영향을 주었다.
- ⑤ 문과와 무과의 시행으로 문무 양반 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

정답: ③

\* 고려 과거 제도의 특색(좌주-문생 관계)

고려의 과거 제도는 시험관인 지공거(좌주: 예부시 시관)와 그의 주관 하의 급제생인 문생 간에는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 즉 문생이 좌주를 대할 때에는 마치 아버지(좌주)와 아들(문생)의 관계의 예를 차렸다. 후기에 갈수록 이 관계가 정치 세력화 되는 문제를 야기하자 조선 태종 대에 제도적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①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의 이념과 이론에 따라 덕치주의를 내세워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도 유교 예속을 많이 권장하였다.

② 고려 초기 태조 때에는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하여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주거나 성씨를 내리는 등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③ 좌주·문생의 관계는 학연으로서 관직 진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폐단이 있었다.

④ 16세기 중반(조선 중기)부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⑤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에 없던 무과가 시행됨으로써 문반과 무반이라는 양반 관료 체제가 형성되었다.

16. 다음 자료에서 말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오늘날 4고을을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북방을 수호하려는 것이며, 오늘날 성곽을 쌓는 것은 오로지 변방의 방벽을 공고히 하려 함이며, 오늘날 변방을 지키는 것도 역시 저들 적을 방어하여 우리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날의 일은 아니하여도 될 일인데도 경솔하게 백성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대사와 공훈을 좋아하여 병력을 남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 열 명의 백성들이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희령과 경원은 지금 이미 성을 쌓았으나, 마땅히 쌓아야 할 곳은 종성과 용성입니다. 오직 이 두 성을 쌓으면 우리들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19년 8월

- ① 원·명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공민왕이 수복하였던 곳이다.
- ②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였던 국가의 중심지였다.
- ③ 사민 정책과 토관 제도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개척을 추진하였다.
- ④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면서 무장 항일 운동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 ⑤ 개항 후 러시아에 철도 부설권이 부여되어 철도가 놓이면서 개발되었다.

정답: ③

\* 조선 세종 때의 북방 개척 지역: 4군, 6진 (압록강 중·상류, 두만강 일대)

세종 대왕은 여진족이 살던 북방 지역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최윤덕 장군을 시켜 압록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43), 김종서 장군을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49).

이와 함께 조선은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을 대거 북방으로 이주시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는 사민 정책을 실시하였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

① 쌍성총관부(철령 이북) 지역이고 오늘날의 함경남도 개마 고원 이남 지역이다

② 동예: 함경남도 남부, 강원도 북부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하였다

④ 성명회, 권업회, 대한 광복군 정부, 대한 국민의회 등은 모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다.

⑤ 러시아가 조선의 철도 부설권을 가진 적은 없다. 이 지역의 철도는 대부분 삼립철도로서 1930년대 일제의 자원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7. 다음 기구들이 처음 제작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복원 모형

- ① 갑인자를 주조하여 인쇄 기술을 발전시켰다.
- ② 향약구급방을 편찬하여 국산 약재를 소개하였다.
- ③ 서양 문물 수용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기구가 제작되었다.
- ④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 ⑤ 도덕 윤리를 기준으로 형식 논리를 중시한 예학이 발달하였다.

보기의 자료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이고 세종 때에 만들어졌다.

• 조선 초기에는 각종 서적의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활자 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하였다.

고려 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이어서 세종 때에는 역시 구리로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① **갑인자**: 1434년(세종 16) 갑인년에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로서 완전한 조립식 판짜기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

② **향약구급방**: 1236년(고종 23)에 간행한 향약(鄕藥)에 관한 책. 활자본. 3권 1책.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의서(醫書)

③ **동국문헌비고**: 한국의 문물제도를 분류·정리한 백과전서적인 책(조선 영조 46년: 1770)

④ 17세기는 예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예학이 발달하였다. 이 무렵 예는 양난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의 회복이 강조되면서 더욱 중시되었다. 예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방도로서 부각되어, 학문은 예학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예치가 강조되었다. 이처럼 예학 연구가 심화되어 각 학파 간 예학의 차이는 전례 논쟁을 통하여 표출되었으며, 예송은 그 대립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 조선 초기 세종 때의 민족문화 발달

18. 다음과 같은 문화재가 주로 만들어지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만들어졌다.
- ② 지방 호족들이 승탑 건립 비용을 지원하였다.
- ③ 호작도, 평생도, 문자도 등 민화가 유행하였다.
- ④ 팔관회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팔관보가 있었다.
- ⑤ 원효가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 등을 저술하였다.

• 고려 말에 나타난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고 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조선 초기에는 중앙 집권과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에 힘썼다. **태종 때에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것이다.

② 신라 말기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이 시기의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 이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③ 조선 후기에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④ 고려 시대에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이 경비 충당을 위해 팔관보를 두었다.

⑤ 신라 통일 전후기의 원효는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등을 저술하여 불교의 이해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답: ①

\* 조선 초기의 문화재와 시대상

• 보기의 자료는 각각 분청사기 철화어문매병과 어문장군이며 조선 초기(15세기)에 유행하였다.

19. 다음 그림을 수록한 서적을 국가에서 편찬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군신, 부자, 부부의 윤리 강화
- ② 전제 왕권과 부국 강병 정책 강화
- ③ 새로운 시대적 세태의 사실적 묘사
- ④ 농업 기술의 발전 성과 소개 및 전파
- ⑤ 국토의 자연 및 인문 지리적 지식 정리

정답: ①

\* 조선 초기 유교통치(삼강행실도):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먼저,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 뒤이어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잡게 하였다.

세종은 왕도 정치를 내세워 유교적 민본 사상을 실현하려 하였다. 유능한 인재를 널리 발굴하였으며, 청백리 재상을 등용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삼강행실도:** 1431년(세종 13)에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설순(裒循) 등이 왕명에 따라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 3강(三綱)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이다.

20. 다음 토지 제도의 실시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중앙의 관료들에게 사전(私田)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을 지급하였다.
- 죽은 관료의 가족 생계를 위하여 수신전, 활양전을 지급하였다.
- 특별히 공이 있는 신하에게 공신전이나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 지방 전주(田主)들의 수조지를 몰수하고 군전(軍田)을 지급하였다.

— < 보기 > —

- ㄱ. 병작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 ㄴ.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佃客)에게 있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었다.
- ㄷ. 세습되는 토지가 많아져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차 부족하게 되었다.
- ㄹ. 관계(官階)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수조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조선의 과전법 (1391)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활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 과전법의 성립으로 전호(전객)가 전주에게 1/2의 조를 바치던 병작반수제가 금지되고, 수확의 1/10(1결당 30두)을 징수하였다.

㉡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리(전주)에게 수조권을 지급하고 민전의 농민(전객)에게는 소유권이 있음

㉢ 수신전, 활양전 명목으로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

㉣ 과전법은 직산자(職散者)의 고하에 따라 (18등급)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의 땅을 지급하되, 1대에 한하였다. 따라서 산관(고려·조선 시대에 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하던 관원)도 수조권이 주어졌다.

21.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세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조선의 성종 때를 전후하여 등장한 정치 세력이었다.
- 3사에서 언론과 문필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개척하였다.

- < 보기 —
- ㄱ. 서원을 토대로 학문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소학 보급에 노력하였다.
  - ㄴ. 천거나 문음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였다.
  - ㄷ. 여러 차례의 사화를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 ㄹ. 대지주층으로서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 제도 정비에 기여하였다.
  - ㅁ.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면서 향촌 자치를 내세웠다.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정답: ②

\* 조선 중기 사림 세력에 대하여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들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이들은 훈구 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였던 데 비하여 향촌 자치를 내세웠고, 서원 등의 사학(私學) 출신이고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 하였고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의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고,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 중종 때 조광조를 통한 현량과의 천거제는 사림이 이용하였지만 문음(음서)은 아니다. 또한 중앙집권이 아닌 향촌자치를 주장하였다.

㉢ 사화에 의해 사림은 오히려 여러 번 제거되었다. 대립 세력인 훈구파에 대한 설명이다.

<4대 사화>

무오사화(1498): 사초(조의제문) 문제

갑자사화(1504): 폐비 윤씨 문제

기묘사화(1519): 조광조의 급진개혁 문제

을사사화(1545) 대운, 소운 외척 간의 정쟁

22. 다음은 18세기 지역별 신분제의 변동을 나타낸 표이다.  
당시 이러한 변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2점]

지역	연도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단성	1717	1,99	52.5	27.6
	1786	32.2	59.0	8.8
언양	1711	19.5	72.3	8.2
	1798	57.6	41.0	1.4
대구	1732	18.7	54.6	26.6
	1789	37.5	57.5	5.0
울산	1729	26.3	59.8	13.9
	1765	31.0	57.0	2.0

- ① 노비들의 도망이 점차 확산되었다.
- ② 왕의 지시로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었다.
- ③ 양반 족보를 위조, 매입하는 방법이 성행하였다.
- ④ 양인 여자의 소생은 어머니의 역을 따르도록 하였다.
- ⑤ 곡물이나 돈을 받고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답: ②

\*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

조선 후기에는 균역 등의 부담으로 인해 상민 층의 양반으로의 신분상승을 추구하고, 납속책, 공명첩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가능하였다. 상대적으로 상민층은 감소하였고 이는 국가 재정의 감소를 가져오기에 국가는 노비층의 상민으로의 신분상승을 부추겼다.(노비종모법, 공노비 해방)

①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도망 노비들은 임노동자나 머슴, 행상이 되거나, 화전을 일구며 살아갔다. 도망한 노비의 신공은 남아 있는 노비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노비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노비의 도망이 빈번해지자, 나라에서는 신공을 줄여 달래기도 하고, 이들을 찾아 내려고도 하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② 노비세습제가 폐지된 것은 고종 23년(1886)이다. 이에 앞서 공노비 해방은 순조(1801)때 이루어졌고 모든 신분제가 제도적으로 철폐된 것은 갑오개혁(1894) 때이다.

③ 족보 위조(환부역조)나 족보 매입의 비합법적 방법으로도 신분 상승 가능

④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노비종모법: 1731)

⑤ 납속책에 대한 설명

23. 다음 두 비가 건립된 국왕 때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노론, 소론의 인사를 주로 기용하였다.
- ② 서인, 남인을 초월하여 무신을 중용하였다.
- ③ 집권 붕당의 교체를 통해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 ④ 유력 가문이 독점하고 있던 비변사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 ⑤ 군주도통론에 입각하여 '의리주인(義理主人)'을 강조하였다.

정답: ③

\* 조선 숙종 당시의 정치 상황

왼쪽 그림은 청과 간도 문제를 놓고 국경계를 담판 기록한 '백두산정계비'이고, 오른쪽 그림은 '북관대첩비'이다. 각각 숙종 때 (1712, 1709)에 세워졌다.

숙종은 45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당파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당시에는 '환국(換局)'이라 하였다. 환국 정치 운영은 말하자면 군주가 내각을 자주 교체하여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다. 외형상으로 보면 숙종 시대는 붕당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시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정책대결 속에서 국가발전이 가속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① 숙종은 주로 서인(노론)과 남인을 번갈아 가며 기용

② 숙종은 서인, 남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

④ 비변사의 지위를 격하 후 폐지 한 인물은 흥선 대원군이다

⑤ 정조는 기존의 성리학의 도통과 의리(성리학 주된 종지)의 대표로 받들던 산림·외척 결합 세력의 주인인 송시열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이 사림의 정통이라 자처했다. 즉 군주이면서 성리학의 종주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정조는 기존의 왕들이 가부만 결정하던 문묘종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는 이론적 해계모니를 장악하였다.

24. (가)~(마)가 제작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나)



(다)



(라)



(마)



- ① (가) -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많은 사원이 만들어졌다.
- ② (나) - 사림 세력의 비판으로 불교 미술은 쇠퇴하였다.
- ③ (다) -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탑이 만들어졌다.
- ④ (라) -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양식이 출현하였다.
- ⑤ (마) - 부농과 상인의 지원으로 안성 석남사가 세워졌다.

정답: ④

\* 건축 문화재를 통한 시대상 파악

(가) **법주사 팔상전**(17세기):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나) **분황사 모전 석탑**(신라, 7세기)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고려 전기)

고려 시대의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각 다층탑이 많았고, 안정감은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었다. 석탑의 몸체를 받치는 받침이 보편화되었다.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과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유명하다

(라) **감은사지 3층 석탑**: 통일 신라에 들어와 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완성하였다. 통일 신라 초기의 석탑으로 대표적인 것은 감은사지 3층 석탑이다

(마)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의 대표적 석탑,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원이 건축된 것은 조선 건국 이전이다

⑤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같은 사원이 대표적이다.

2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겨울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온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라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어려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 이리여, 승냥이여!  
삼살개는 이미 빼앗아 갔으니 / 닭일랑 묶어 가지 마라,  
자식은 이미 팔려 갔고 / 내 아내는 누가 사랴,  
내 가족 다 벗기고 / 뼈마저 부수려나.

— < 보기 —

ㄱ. 삼정 문란의 원인을 살펴본다.  
ㄴ. 사창제의 폐단에 대해 살펴본다.  
ㄷ. 현량과 실시의 사회적 영향을 알아본다.  
ㄹ. 19세기 정치를 주도하던 세력을 조사해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19세기 세도정치기 삼정의 문란

보기의 자료를 보면 수령의 뇌물과 이를 위한 가혹한 세금징수를 유추할 수 있다(삼정의 문란: 3가지 세금행정 문란),

19 세기의 세도 정권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능력도 지니지 못하였다. 세도 정권은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인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여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향촌에서는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가지고 조세를 거두도록 하였다.

세도 정치기에는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하였으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조세 수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삼정의 문란).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부당한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 ㉠ 삼정의 문란(전정.군정.환곡)의 원인은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 기강의 문란과 매관매직, 수령 자리의 상품화이다..
- ㉡ 사창제는 환곡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단이라 할 수 없다
- ㉢ 현량과는 16세기 초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이 주창 한 것이므로 해당이 안됨

26.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의 농촌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주 전호제도 변화해 갔다. 양반은 소작료와 그 밖의 부담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었으나, 소작인의 저항이 심해지자 소작료를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주 전호제가 신분적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 간 것이다.

< 보 기 >

ㄱ. 광작이 성행하고 서민 지주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ㄴ.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수입을 증가시켰다.  
 ㄷ. 소작농들은 벼 수확 후 논에서 보리농사 짓는 것을 선호하였다.  
 ㄹ. 몰락 농민들은 임노동자가 되거나 상공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 조선 후기 농업.상.공업의 변화

• 이앙법(모내기법) -> 광작의 유행 -> 농민층의 분화(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 -> 토지에서 유리되어 난전 또는 임노동자화)

• 대동법 -> 공인의 등장 ->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광작(모내기법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이로 인한 경지 1인당 면적의 확대)의 성행은 일부 능력있는 농민들의 서민지주 등장을 낳았다.

㉡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들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쌀은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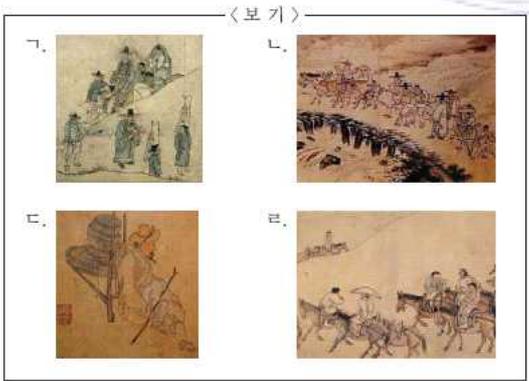
소작 농민들은 좀 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소작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소작료도 수확량의 반이나 내던 것에서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도조제: 정액제)

㉢ 논에서의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

㉣ 농촌을 떠난 다수의 농민은 도시로 옮겨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으며, 일부 농민은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 임노동자가 되었다

27. 다음 자료의 내용에서 유래한 경제 활동 모습과 관련된 그림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경인년(1470, 성종 원년) 흉년이 들었을 때, 전라도의 백성이 스스로 서로 모여서 시포(市鋪)를 열고 장문(場門)이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힘입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외방에 시포를 설치할 기회였으나, 호조에서 수령들에게 물으니 수령들이 이해를 살피지 않고 전에 없던 일이라며 다들 금지하기를 바랐으니, 이는 상습만을 좇는 소견이었습니다. …… 이제 외방의 큰 고을과 백성이 번성한 곳에 시포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되, 강제로 하지는 말고 민심이 원하는 대로 하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정답: ④

\* 조선의 장시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지방민들의 교역 장소로, 인근의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여기에는 보부상(부상이란 나무 그릇, 토기 등의 비교적 조잡한 일용품을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등짐장수를 말하며, 보상은 비교적 값비싼 필묵, 금·은·동제품 등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봇짐장수를 가리킨다)이 각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행위를 하였다

- ㉠ 신행(김홍도)
- ㉡ 귀시도(歸市圖; 김득신)
- ㉢ 등짐장수(권용정)
- ㉣ 장터길(김홍도)

28. 밑줄 그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정조는 ㉠준론탕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을 제거하였다. 이어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계열 인물을 중용하였고,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실시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① ㉠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것이었다.
- ② ㉡ - 대표적 인물은 채제공, 이가환, 정약용 등이었다.
- ③ ㉢ - 신진 인물과 중하급 관리 중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것이었다.
- ④ ㉣ - 본래 역대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기 위한 기구였다.
- ⑤ ㉤ -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철폐되었다.

정답: ⑤

\* 정조의 업적: 적극적 탕평론(준론 탕평), 초계문신제, 규장각 설치, 신해통공, 화성 건설, 장용영 설치 등이 있다

영.정조 탕평론의 비교:

영조대의 탕평책은 붕당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없애고자 각기의 명절보다도 타협을 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래서 당시 대립하던 노론·소론 중에 온건론자들이 이를 지지하여 그 정국이 완론(緩論) 탕평이라 일컬어지고, 그 참여자들은 탕평당이라 불리기까지 하였다.

정조 대에 취해진 탕평책은 영조의 완론 탕평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탕평당을 형성하여 탕평의 근본 정신을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영조와는 다른, "준론 탕평책"을 펼친다.

준론 탕평은 진정한 의리에 바탕을 두는 탕평책을 펼쳐 노론 가운데 영조 때에 탕평과 대신들을 비판하였던 청론 계열과, 정치집단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계열을 등용하였다.

- ① 준론 탕평은 옳고 그름을 명백히 하는 적극적 성격
- ② 채제공, 이가환, 정약용은 모두 남인 계열임
- ③ 초계문신제란 유능한 신진관료를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킴
- ④ 규장각은 본래 학술도서관적 성격이었으나 정조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적 성격으로 강화되었다
- ⑤ 신해통공: 1791년(정조 15) 육의전 이외의 시전(市廛)에 대한 전매 특권을 폐지하고 각종 상품에 대한 사상인(私商人)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한 상업정책. 이는 난전의 활성화 즉 자유상인(사상)의 발전을 가져왔다.

29. 남한강의 역사와 유적을 답사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정리하였다. (가)~(마)에 대한 조사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상류 지역은 석회암 지대라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나) 고구려가 남진하거나 신라가 북상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의 활용이 중요하였다.  
(다) 고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불교 관련 유적과 유물이 많이 있다.  
(라)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경상도를 연결하는 조운로 및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마) 임진왜란 때 왜군의 공격로와 일제 때 우리 문화재의 수탈과도 관련이 있다.

- ① (가) - 수양개 유적, 금굴, 상시 동굴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② (나) - 중원 고구려비, 단양 적성비, 온달산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③ (다) - 흥법사지, 거둔사지, 신륵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④ (라) - 공세창, 영산창과 세종 및 효종의 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⑤ (마) - 탄금대 전투와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의 반출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정답: ④

\* 남한강 유역의 역사

남한강은 경기 남동부(여주), 강원 남서부(원주), 충북 동북부(충주, 단양)를 지나감

(가) 충북 단양 지역의 구석기 유적

- 단양 금굴: 1983, B.C 70만 년 전의 유적, 한반도 구석기 시대 최고(最古)의 유적
- 단양 수양개: 1980, 물고기 조각
- 단양 상시 바위그늘(1984): HSS(남한 최초)의 특징을 가진 인간의 화석이 발견

(나) 고구려와 신라의 한강 진출과 각축장

충주: 중원 고구려비

단양: 단양 적성비, 온달산성

(다) 불교 사찰

흥법사(원주), 거둔사(원주), 신륵사(여주)

(라) 조운로

공세창(충남 아산), 영산창(전남 나주)은 모두 남한강과 무관한 해로 조운창이다.

남한강과 관련된 조창은 흥원창(원주), 가흥창(충주) 등이다.

- 세종의 능(英陵)과 효종의 능(寧陵)은 공교롭게도 둘다 발음이 영릉이고 같은 여주의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 기타 유적

- 탄금대(임란때 신립 장군이 장렬히 전사한 곳, 충주 소재),
-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고려시대 지광국사의 부도탑이다. 본래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져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일본 오사카(大阪)까지 불법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환되어 현 위치에 세워졌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때 파손되어 버렸고, 1957년에 복원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경내에 있음)

30.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던 시기의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모내기철 품팔이에  
 집집마다 아낙네들 바빠  
 보리 베는 남편 일을 돕지 못하네.  
 이 서방네 약속 어기고 장 서방네로 가나니  
 이로 보면 밭모보다 돈모가 낫지 않나.

- 밭모: 밭이나 언어 먹고 해 주는 모내기.
- 돈모: 돈을 받고 하는 모내기.

- 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 ② 도조법이 점차 확대되었다.
- ③ 자연 농민의 수가 증가하였다.
- ④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 ⑤ 사상(私商)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이양법(모내기법)의 유행과 농·수공업의 발달

① 조선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 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도 높아 민영수공업이 발달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는 소작료도 수확량의 반이나 내던 것에서 (타조제: 병작반수제)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도조제: 정액제)

③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 광작이 유행하였고 이는 농민층의 분화를 불러일으켰다. 즉 일부 농민이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대다수 농민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란 어용 상인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는데, 공인들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들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도 활성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 널리 확산된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는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을 보다 촉진시켰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인구와 자연 증가뿐만 아니라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어 농촌에서 유리된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조때의 신해통공 즉 금난전권의 폐지는 난전의 활성화 즉 자유상인(사상)의 발전을 가져왔다.

31.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良役)이다. …… 백성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니, 혹 한 집안의 부자, 조손(祖孫)이 균역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3~4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균포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며, 황구(黃口)는 젖 밑에서 균정으로 편성되고, 백골(白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한 사람이 도망하면 열 집이 보존되지 못하니, 비록 좋은 재상과 현명한 수령이라도 역시 어찌할지를 모른다.

- ① 마을마다 창고가 설치되어 흉년에 대비하게 되었다.
- ② 풍흉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의 전세를 거두게 되었다.
- ③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국가 재정을 보충하였다.
- ④ 토지 1결당 12두의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지주의 부담이 커졌다.
- ⑤ 호패법과 오가작통법이 강화되어 농민의 거주 이전이 어려워졌다.

정답: ③

\* 균역의 폐단과 균역법

보기를 보면 인징(隣徵)·족징(族徵)(도피자가 10년이 넘으면 면세하게 되어 있었으나 도망자의 납세분을 친척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 황구첨정(만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균역에 올리고 그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 백골징포(만 60세가 넘었거나 사망 한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등을 보는데 이는 모두 균역의 폐단이다.

균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균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균역 부과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1년에 균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걸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균관이란 칭호를 주고 균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 ① 흉년 대비책
- ② 영정법(전세 개혁)
- ④ 대동법(공납의 전세화)
- ⑤ 호패법·오가작통법: 농민들의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32.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勢)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半徑)밖에 되지 않는데도 몇천만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물며 천체가 서로 의존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고 있는 우주 공간의 세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음에랴. …… 칠정(七政: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수레바퀴처럼 자전함과 동시에 뿔뿔을 돌리는 나귀처럼 둘러싸고 있다.

- ① 실지 답사를 기초로 하여 실측 지도를 제작하였다.
- ②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을 마련하였다.
- ③ 서양인이 저술한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와 녹로를 만들었다.
- ④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확대시켜 한반도 중심의 사관을 극복하였다.
- ⑤ 임하경륜을 저술하여 양반들도 생산 활동에 종사할 것을 역설하였다.

정답: ⑤

\*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한 홍대용

보기의 자료는 담헌 홍대용의 담헌집에 나오는 지전설(김석문과 함께 주장)과 무한우주론의 내용이다.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홍대용은 중상학과(북학과)의 선구자로 지구의 자전설을 설파하였고, 균전제·부병제를 토대로 하는 경제정책의 개혁, 과거제도를 폐지하여 공거제(貢擧制)에 의한 인재 등용, 신분의 차별의 철폐와 모든 아동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교육기회의 균등부여, 양반도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혁신적인 개혁사상을 제창하였다. 나아가 동양의 화이론(華夷論)을 부정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중심임을 강조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인간과 자연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수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해수용>이라는 수학서를 저술하는 등 사회사상가이자 과학사상가로서 당대의 뛰어난 학자였다.

그의 저서로는 <담헌서>를 비롯하여 편서에 <건정필담>, <담헌연기>, <임하경륜>, <사서문의>, <항전칙독>, <삼경문변> 등이 있다

- 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해당
- ② 조선 초기 칠정산에 해당
- ③ 정약용의 업적
- ④ 유득공(발해고:발해사), 이종휘(동사:고구려사)에 해당

33. 밑줄 그은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신문은 처음에는 한글과 영어를 겸용했으나, 뒤에 국한문 혼용으로 바뀌었다. 그 뒤, 일반 대중을 위해서는 한글판술, 외국인을 위해서는 영문판을 발간하였다. 당시 일제 통감부가 매우 까다롭게 신문을 검열하였으나, 이 신문은 영국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신문사 정문에 '일본인 출입 금지'라고 써서 붙여 놓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였다.

- ① 하층민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
- ② 서재필 등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다.
- ③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 황제의 친서를 게재하였다.
- ④ 조선 정부가 설립한 박문국에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 ⑤ 광무 정권이 표방한 '구분신참'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 대한매일신보(항일언론)

1904년 2월 영국인 베텔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7월 18일에 창간.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주한 일본 헌병사령부의 검열을 받지 않고 민족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민족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언론기관이 되었다.

국한문·한글·영문판 3종의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부수도 세 신문을 합쳐 1만 부를 넘어 당시로서는 최대의 신문이 되었다. 논설진으로는 양기탁 외에 박은식·신채호 등이 있었다.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 내용을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1월 16일자 제 2면에 3단 전단크기의 대형사진판으로 게재하자, 일제는 여러 가지 탄압을 가하여 발행인 배설은 1907년과 1908년 2차례에 걸쳐 재판에 회부되었고, 양기탁도 국채보상의연금(國債報償義捐金)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1909년 5월 1일 배설이 죽고 난 후, 1910년 6월 1일부터는 발행인이 이장훈으로 바뀌었고, 국권피탈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했다

- ① 제국신문(1898~1910)
- ② 독립신문(1896~1899)
- ④ 한성순보(1883~1886)
- ⑤ 황성신문(1898~1910)

34. 다음 자료와 관련된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김광제

애국심이여, 애국심이여, 대구 서공 상돈일세.  
1천3백만 원 국채 갚자고 보상동맹단연회 설립했다네.  
면실하는 마음 발양하니, 대한 국민 분명하도다.  
지금 우리 국가 간난(艱難)한데 누가 이런 열성 가질 건가.  
.....  
여러분, 여러분, 때를 잃지 말고 보상하오.  
국채 다 갚는 날 오면 기쁘고 즐겁지 않을 손가.  
힘씀시다. 힘씀시다. 우리 단천의 여러분이여.

- ①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였다.
- ② 대한 자강회와 같은 애국 계몽 단체가 참여하였다.
- ③ 일본 유학생과 미주, 러시아의 교포들도 참여하였다.
- ④ 통감부는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등 조직적으로 탄압하였다.
- 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등의 구호를 앞세웠다.

정답: ⑤

\* 국채보상운동(1907)

1907년(융희 1) 2월에 대구에서 시작된 국권회복운동으로 전국민이 합심하여 일본에 대한 국채(1,300만 원)를 갚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운동.

1907년 2월 서상돈·김광제·박해령 등 16명이 대구에서 조직한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는 곧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제국신문·만세보 등 언론기관이 자금모집에 적극 참여했으며, 대한자강회 등의 애국계몽운동단체도 참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연운동(斷煙運動)이 전개되었고,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서 이에 호응했다. 그 외에도 여성단체인 진명부인회·대한부인회 등에서는 보상금모집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일본까지 파급되어 800여 명의 유학생들도 참여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이 실시된 이후 4월말까지 보상금을 낸 사람은 4만여 명이고, 5월말까지 230만 원 이상이 거두어졌다.

이에 대해 일제는 송병준 등 친일파가 지휘하던 애국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통감부에서 국채보상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회복운동으로 평가된다.

⑤ 물산장려운동(1920년대에 있었던 국산품 애용운동, 평양에서 시발)

35. 다음 사건의 결과 일본과 맺은 조약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1882년 6월 9일에 경영군(京營軍)에 큰 소란이 벌어졌다. 1874년 이래 대궐에서 쓰이는 비용은 끝이 없었다. 호조나 선해청에 저축해 온 것은 모두 비어서 경관(京官)의 월급도 주지 못했으며, 5영 군사들도 왕왕 급식을 결하였다. 5영을 파하고 2영을 세우니 또한 노약자는 쫓겨나게 되어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완력으로 난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매천야록>

- ① 청에 억류된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도록 한다.
- ② 청은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 ③ 일본 공사관 경비를 담당할 일본군 약간 명을 파견한다.
- ④ 조선은 새로운 일본 공관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비를 지불한다.
- ⑤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한다.

\*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

6개조로 된 본 조약은 임오군란과 직접 관계되는 일의 뒤처리를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① 지금으로부터 20일 안에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주모자를 색출하여 엄히 처벌할 것, ②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용서하게 장사지낼 것, ③ 조선은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위로할 것, ④ 일본이 입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군비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이 매년 10만 원씩 5년 내에 지급할 것, ⑤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이 책임질 것, ⑥ 조선은 대관(大官)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과할 것 등이다.

또한 조선에서의 상권을 보다 확고히 다져 두려는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어 본조약과 함께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부산·월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 2년 후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1년 안에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할 것, ② 일본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는 것이었다

- ① 갑신정변 때의 개혁정강 14개조의 내용
- ②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1895)의 내용
- ④ 공관 신축비용과 부지 제공의 내용은 없다
- ⑤ 제물포 조약에 이런 내용은 없다

정답: ③

36.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서양인들이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를 바라지 않고 천하를 정복하여 교회당을 세우고 그 도를 널리 보급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과연 그럴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 나도 1년이 거의 지나도록 도를 닦으면서 잘 생각하여 보니 역시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으므로, 한편으로 주문(呪文)을 짓고 한편으로 강령(降靈)의 법을 만들고 불망(不忘)의 노래를 지었다.
-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부적을 받아 종이에 써서 먹어 보았다. 그랬더니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나았다. 비로소 선약(仙藥)임을 알았다.

- 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일본군과 싸웠다.
- ②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펴 나갔다.
- ③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하여 교리를 정리하였다.
- ④ 구세제민(救世濟民)의 뜻을 품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다.
- ⑤ 진주와 단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농민 항쟁을 이끌었다.

정답: ④

\* 최제우의 동학 창시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다. 동학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 내자는 주장을 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협시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①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남접), 손병희(북접)

② 동학농민운동 전주화약 당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남접)

③ 동경대전(경전), 용담유사(찬가)의 저작자는 최제우이나 발간자는 2대 교주 최시형이다

⑤ 진주민란의 주도자는 유계춘이다

37. 다음 주장의 형성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나라의 개화는 사람의 진액과 같은 것이니, 기혈을 보양하여 막히지 않고 유통하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듯이, 나라는 물산을 번식하여 편리하게 운수한다면 부강하고 윤택해집니다. 그러므로 물산을 번식시키고 운수를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면 절감·근로해야 하며, 농업, 공업, 어업, 목축업 등을 흥하게 하여 산과 들, 강과 바다의 이로운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금·은화를 만들어 상품 유통과 매매를 편리하게 하고…… 도로와 교량을 만들어 여행자, 수레, 말의 통행의 편이를 도모하고 하천과 바다를 잘 다스려 선박, 뱃목을 소통시켜야 합니다.

- 〈 보기 〉
- ㄱ.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의 보고서 내용을 조사해 본다.
  - ㄴ.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의 개혁 사상을 검토해 본다.
  - ㄷ. 박규수, 유홍기 등 통상 개화론자의 주장을 분석해 본다.
  - ㄹ. 유인석, 최익현 등 항일 의병 운동가의 사상을 조사해 본다.
  - ㅁ.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등 애국 계몽 운동의 취지를 알아본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①

\* 개화파와 선구 사상(북학: 중상학과)

북학(중상학)파의 주장(상공업 진흥과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수레·선박·도로·교량의 이익을 역설 주장)은 개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①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은 개화사상가들이 일본에 가서 메이지 유신 후 발전된 산업의 모습을 견학하고 온 것임

② 박지원·박제가 등의 북학파는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수레·선박·도로·교량의 이익을 역설하였음

③ 유인석, 최익현 등의 항일의병장들은 상공업 진흥을 거부하는 위정척사사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④ 애국계몽운동의 취지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약육강식의 현실을 직시(일제의 강함을 인정 -> 후일 친일적 경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문화·산업에 있어서 힘을 기르자는 취지이므로 윗글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38. 밑줄 그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882년 4월 6일, 제물포에서 조인된 ㉠14개 조항의 조약은 비록 일본과 맺은 조약보다 ㉡불평등성이 부분적으로 완화된 측면도 있고 ㉢양국의 우호를 강조했는지라도 ㉣조선에는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한 최초의 조약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지녔고, 이후 영국을 비롯한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이 조선과 국교를 맺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 ① ㉠ -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 ② ㉡ - 연미론(聯美論)이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 ③ ㉢ -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다.
- ④ ㉣ - 조선의 주장으로 거중 조정의 조항을 넣었다.
- ⑤ ㉤ -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등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정답: ④

\* 조미수호조약(1882)

강화도조약 이후 청은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을 집약한 책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도입된 황쑨셴의 <조선책략>이다. 이 <조선책략>은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책략>은 조선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문 14개조로 구성된 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제1조:거중조정), “양 체결국은 각각 외교대표를 상호 교환하여 양국의 수도에 주재시킨다”(제2조), “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한다”(제4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권은 조선정부에 속한다”(제5조), “거류지는 조선영토의 불가결한 부분이다”(제6조). “양국간에 언어, 문예, 법률 등 문화학술교류에 보호와 원조를 다한다”(제11조) 등이다.

이로써 조선은 비로소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직접적인 문호개방을 하게 되었고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 독일 등 구미 제국과의 조약은 거의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준용하였다.

④ 이 조약은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 확인 차원에서 알선했으므로 청의 속방적인 조선이 거중조정을 제안했을리는 없다. 따라서 미국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추정된다

39. 밑줄 그은 '우리 당'이 주장한 개혁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2점]

우리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사대당이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당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개혁안도 없어질 것이다. 조선은 청에 영구히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과 사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 ①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
- ②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는 등용할 것.
- ③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본을 확립할 것.
- ④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 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정답: ③

\* 급진 개화파와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 14개조의 주장 내용

급진개화의 리더인 김옥균이 개화정책 추진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교섭에 실패한 후 나온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당은 급진 개화(변법 개화)세력이고 사대당은 청을 모델로 한 온건 개화 세력(민씨 세력)이다

- 1.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으로 나라에 돌아오게 하도록 할 것.
- 2. 문벌을 없애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제정하고 사람으로써 벼슬을 택하되, 벼슬로써 사람을 택하지 말 것.
- 3. 전국에 걸쳐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들의 협잡을 방지하고 인민들의 부담을 덜어 곤란을 제거하며 동시에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 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쓸 것.
- 5.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나라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자는 엄벌할 것.
- 6. 각 도의 환상 제도를 영원히 없앨 것
- 7. 규장각을 없앨 것
- 8. 시급히 순사 제도를 내세울 것.
- 9. 해상공국을 없앨 것
- 10. 전후유배. 금고된 사람은 사정을 참작하여 풀어줄 것
- 11. 4명을 합하여 1명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다시 뽑아 근위대를 설치할 것
- 12.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다른 재무아문은 혁파할 것
-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안의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 14. 정부 6조 말고 필요없는 관청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이 합의하여 처리하게 할 것

③ 징병제 등의 군제 개혁 주장은 없었다

40. 다음 민족 운동의 추진 결과 나타난 성과로 옳은 것은? [2점]

-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 어느 실학자의 서거 100주기 행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 1930년대 중반에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민족을 중시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찾으려 하였다.

- ① 조선 광문회에서 실학자들의 저술을 간행하였다.
- ② 박지원이 저술한 열하일기와 과농소초를 편찬하였다.
- ③ 북학과 실학과 개화 사상과의 연관성을 새롭게 밝혔다.
- ④ 정약용의 저서들을 정리하여 여유당전서를 편찬하였다.
- ⑤ 일종의 한국학 백과사전인 증보문헌비고를 간행하였다.

정답: ④

\* 조선학 운동(1934)

정인보.문일평.안재홍 등 민족주의 역사학들이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① 조선광문회(1910~1914): 최남선, 박은식 등이 조직한 실학자의 저서 등 민족 고전을 정리.간행한 단체

② 증보문헌비고: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백과사전적인 책인 <동국문헌비고>를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이만운 등에게 이를 바로잡아 보편(補編)한 책이다. 상고 때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를 총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책이다.

41.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세계의 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잘사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 지식을 밝히는 것은 교육을 잘하였기에 이룩된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 이에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 중흥의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신민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와 지를 기를지이다. 왕실의 안전이 신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 또한 신민들의 교육에 있도다.

- ① 임오군란 직후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상소가 올려졌다.
- ② 홍범 14조를 반포하여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③ 갑신정변으로 신정부를 수립하고 혁신 정강을 공포하였다.
- ④ 독립 협회 설립 후 서양 교육의 수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⑤ 을사조약 체결 후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이 고조되었다.

정답: ②

\* 교육입국조서(1895)

2차 갑오개혁 시기(1894.12~1895.5)인 1895년 2월 고종이 조칙(詔勅)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서.

근대식 학제(學制)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4년 6월 학무아문을 두고 새 학제를 실시하여 관학(官學)을 세우고, 1895년 1월 선포한 '홍범 14조(洪範十四條)'의 제 11조에서 외국유학과 새로운 학문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전(全)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조서가 최초의 것이다.

이 조서는, ① 교육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며, ②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실용을 추구하며, ③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지·체·육을 들었고, ④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중흥과 국가보존에 직결된다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이 교육조서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4월 최초의 현대식 학교법규라 할 수 있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어서 1904년까지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 규칙, 소학교 규칙대강, 보조공립학교 규칙, 의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규칙, 농상공학교 규칙이 공포되어, 이들 관제에 해당하는 관립학교가 설립되었다.

- ① 임오군란: 1882년
- ③ 갑신정변: 1884년
- ④ 독립협회 창설: 1896년
- ⑤ 을사조약: 1905년

42. 다음 상소의 역사적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일본은 우리나라의 관문과 요새를 알고 있고 수륙 요충을 이미 점거한 바 있습니다. …… 만일, 그들이 우리의 무비(無備)한 것을 보고 공격을 자행하면 전하께서는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미국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 만일, 우리의 허점을 보고 우리의 약점을 엿보아 옹하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거나 어려운 부담을 떠맡긴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를 대응하려 하십니까? 아라사 오랑캐는 본래 우리와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말을 믿었다가 틈이 생긴다면 우리의 체통이 손상되게 됩니다.

— < 보 기 > —

- ㄱ.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책략을 반입하였다.
- ㄴ. 일제가 경복궁을 점령한 뒤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다.
- ㄷ. 정부가 개화파 인사를 등용해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ㄹ. 러시아 남하 저지를 구실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책략의 유포와 위정척사세력의 영남 만인소 운동(1881)

러시아를 맞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었다(1880),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정척사 세력(이만손, 홍재학)의 개화 운동 반대와 결합되어 영남 만인소를 야기시켰다(1881)

- ㉠ 1차 갑오개혁(1894)
- ㉡ 거문도사건(1885)

43. 다음 작품을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보기>

- ㄱ. 금석문 연구서인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 ㄴ.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서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 ㄷ. 중국 화법을 수용하여 우리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진경산수화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 ㄹ.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 추사 김정희 대하여

보기의 자료는 추사 김정희의 ‘부작란’임

김정희(1786~1856):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남종 문인화 계열). 자는 원춘(元春). 호는 완당(阮堂)·추사(秋史)·시암(詩庵). 순조 19년(1819)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학문 연구에 대해서는 실사구시를 주장하였고, 우리 서예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고증학, 금석학에도 밝아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작품에 <묵죽도(墨竹圖), <묵란도(墨蘭圖)>, <세한도(歲寒圖)> 따위가 있으며, 저서에 《완당집》, 《금석과안록》 등이 있다.

- ㉠ 정선의 그림 특징
- ㉡ 이익의 역사관

44. 다음 의견을 반영한 일제 식민 통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생각건대, 장래의 운동은 지난봄에 일어난 만세 소요처럼 어린이에 장난 같은 것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앞으로 실력을 갖춘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각오를 다져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 압박을 가해 절식시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방책도 강구함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 그 방책은 위력 있는 문화 운동뿐이다. ……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별지에 시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기재하니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의 조선 통치에 관한 의견서 -

- ① 조선 총독의 자격 기준을 바꾸었다.
- ②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대체하였다.
- ③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 ④ 수재 교육의 명목으로 친일 지식인을 양성하였다.
- ⑤ 조선 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일본어로 진행하게 하였다.

정답: ⑤

\* 일제시대 2기 문화통치(1920년대)

...지난봄의 만세 소요...는 1919.3.1운동을 말하며, 중간의 ...문화운동뿐이다... 를 통해서 볼 때 문화통치의 의견서임을 알 수 있다.

일제는 3·1 운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통치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헌병 경찰 통치의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웠다.

일제는 ‘문화의 창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미명아래 총독 무관제 폐지, 헌병 경찰 제도의 폐지와 보통 경찰제 실시, 일반 관리 및 교원의 제복 착용 및 대검 폐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제한적 허용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제의 새로운 통치 방식은 식민지 지배의 강화 및 민족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패망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보통 경찰은 기존의 헌병 경찰을 제복의 색깔과 명칭만 바꾼 것이었다.

또한 3·1 운동 이후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수시로 검열하였다. 식민 통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릴 경우 기사를 삭제하거나 신문을 압수하기도 하였다.

일제가 표방한 ‘문화 통치’의 본질은 민족 분열을 유도하여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는 데 있었다. 일제는 상층 자산가에게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 회유하는 한편, 치안 유지법 등을 한국에 적용하여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농민 운동을 강력히 탄압하였다.

④ 민립대학설립운동은 방해하였으나 경성제국대학(1924년 법 제정, 1926년 설립)을 통하여 친일지식인과 관료를 양성하였다.

⑤ 문화통치 기간(20년대)에는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유지하였음(1922년 2차 조선교육령)

45. 다음은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보여 주는 광고이다. 이와 관련된 식민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회사령을 폐지하여 일본의 자본 진출을 도왔다.
- ② 소학교를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에서 국민 학교로 바꾸었다.
- ③ 헌병 경찰 계도와 태형령으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막았다.
- ④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다.
- ⑤ 토지 조사 사업으로 궁방전, 역둔토 등을 일본인 소유로 바꾸었다.

정답: ②

\* 창씨 개명과 민족말살정책(또는 황국신민화정책: 1938년 총동원령 이후 조선인들을 침략전쟁으로 몰아 넣기 위해 우리의 민족

혼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는 정책)

① 1920년에 일제가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꾼(회사령 폐지) 이후, 면방직이나 식료품 공업, 광업 분야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②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구한말에 등장한 소학교의 명칭은 1906년 8월 27일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따라 보통학교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다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1941년 3월 31일 일왕의 칙령에 따라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이것이 8·15광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1996년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③ 1910년대에 일제는 무단 통치를 행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빼앗고, 독립 운동을 탄압하였다. 또, 일제는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우리 민족을 대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④ 1920년대에 조선 총독부는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워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⑤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46. 다음 자료를 시대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1점]

- (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表),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 신고해야 한다.
- (나) 앞으로 어떤 큰 사태가 닥쳤을 때, 가령 중국 대륙 작전군에게 일본 내지로부터의 해상 수송이 끊기더라도, 조선의 힘만으로 이것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군수 공업 육성 등 조선 산업 분야를 다각화해야 한다.
- (다) 일본에서 쌀 소비는 연간 약 6천5백만 석이다. 일본 내 생산고는 약 5천8백만 석을 넘지 못한다. 해마다 부족분을 다른 제국 판도 및 외국에 의지해야 한다. ……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급무라고 믿는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정답: ②

\* 일제의 시기별 경제수탈 정책

(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

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총독부는 지세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나) 19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크게 늘어났다. 총독부가 일본은 발전된 공업 지역으로 유지하면서, 만주는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국은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 공업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주로 한반도의 북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조선 공업화 정책은 대륙 침략을 위한 전쟁물자 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추진되었다. 일제는 전력 자원을 개발하고, 토지와 노동력을 값싸게 공급하였으며, 광산 자원을 약탈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대자본이 활발하게 침투하면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금속,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수리 시설의 확대와 품종 교체, 화학 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지주는 다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소작농은 수리 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 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결국 지주는 빠르게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47. 다음 글을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오늘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밀려오는 환난을 동양 인종이 일치단결해서 온 힘을 다하여 방어해야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임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익히 아는 바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승리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우의를 끊어, 스스로 도요새가 조개를 쪼려다 부리를 물리는 형세를 만들어 어부에게 둘다 잡히기를 기다리는 듯하는가?

- ① 천주교 신부에게 서구의 지식을 배웠다.
- ②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③ 국제 보상 운동에 참여하여 관서 지부를 조직하였다.
- ④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⑤ 돈의 학교와 삼흥 학교를 세워 구국 영재 양성에 힘썼다.

정답: ④

\* 안중근에 대하여

안중근의 여순감옥시절에 집필한 동양평화론의 일부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한·중·일 3국 대표가 참여하는 동양평화회의의 개최, ② 러순의 개방과 공동관리, ③ 동북아 3국 공동은행의 설립과 공용화폐 발행, ④ 3국 군단의 편성과 2개 국어 교육을 통한 평화군 양성, ⑤ 상공업의 발전과 공동 경제발전, ⑥ 3국 황제의 로마교황을 통한 승인 등이다.

한마디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과 공생 사상으로서 동양평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④는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의 의병을 모아 서울로 진격하여 통감부를 격파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된 전국의병부대이고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許薦)를 중심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조직력의 와해로 실패하였다.

48.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역사는 발전을 지향한다. 인류사상 전에 없었던 참사인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함께 우리 조선에도 해방의 날이 왔다. …… 전후 문제의 국제적 해결에 따라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기반(繩絆)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민족의 해방은 단란한 운동사상에 있어 겨우 새로운 일보를 내디디었음에 불과하니 완전한 독립을 위한 허다한 투쟁은 아직 남아 있으며 새 국가의 건설을 위한 중대한 과업은 우리의 전도에 놓여 있다. ……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층각계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 전선인요 결코 혼잡된 협동 기관은 아니다.

- ① 전국 각지에 설치된 지부가 치안과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 ② 친일파를 배제한 좌우 정치 세력의 민족 연합 전선을 추구하였다.
- ③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미군 진주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④ 미군정 시기에 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 ⑤ 여운형을 위원장으로 해 치안의 회복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답: ④

\* 여운형 주도의 건국준비위원회 (1945.8.15~45.9.7)

온건 좌파 여운형 측이 해방 전에 조직하였던 '건국동맹'을 모체로 발족시켜 정치범을 석방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약칭 '건준(建準)'이라 한다.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 15일 조선에서는 민족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8월 말까지 전국에 145개에 이르는 지부를 결성하였다.(친일파를 제외한 좌우 연합적 성격)

그러나 '건준'의 치안대가 경찰관서를 접수해 가는 과정에서 총독부는 8월 16일 갑자기 행정권의 이양을 거부하고, 조선군사령관이 경찰관서 등을 다시 접수하였다. 미군 진주군 사령관 하지와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사이에 항복조인이 9월 9일 체결되었다. 이에 앞서 9월 6일 밤에 경기 여고 강당에서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인민공화국임시조직법'을 통과시킨 다음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수립을 선포했다. 9월 7일 건준은 '발전적 해소'라는 미명 아래 사라졌다. 미군은 중경(重慶)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건준'을 중심으로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을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④ 미군정은 1945.9.8부터 정식으로 주둔하여 시작

49. 다음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나온 각 정당의 구호이다. (가)~(다)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정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 직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 ② (나) 정당 대통령 후보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할 수 있었다.
- ③ (다) 정당 대통령 후보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약 30%를 득표하였다.
- ④ (다) 정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 이후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하였다.
- ⑤ (나) 정당과 (다) 정당은 본래 같은 당이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분당되었다.

정답: ⑤

\* 1956년 3대 대선 각 정당 후보들

- (가) 민주당(제1야당), 신익희 후보
- (나) 자유당(집권당), 이승만 후보
- (다) 무소속->진보당(야당), 조봉암 후보

① 1956년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 자유당의 이승만과 맞서 호남지방으로 유세가던 중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급사

② 사사오입개헌(1954):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③ 조봉암과 진보당은 통일정책에 있어 당시 거의 절대적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던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국제연합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주창(主唱)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북한 정권과 그 배후의 국제공산세력인 소련 및 중국이 주장하는 중립국 감시위원단 감시하의 총선거안과 같은 주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진보당 사건: 1958.1)

④ 진보당 사건으로 당 해체와, 조봉암 사형(1959.7)

⑤ 1956.11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민족주의자들과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이 조직한 정당

50.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마음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위의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착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 하겠다.

— < 보 기 > —

- ㄱ. 한국 문제 유엔 상정
- ㄴ. 여운형과 김규식의 좌우 합작 운동
- ㄷ. 대한민국 정부 수립
- ㄹ.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이승만의 단정론과 김구의 통일정부론

(가)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6)  
1946.6,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

(나) 김구의 3천만 동포에 고향(1948.2)  
유엔소총회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남한)만의 총선거 결정->김구, 김규식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정치지도자 회담 제안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1차: 1946.1),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 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1946.5). 이런 가운데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1946.6: 정읍발언, 단정론),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1946.7).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1947.10),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 민국으로 정하고,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이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 1947.9
- ㉡ 1946.7~47.7
- ㉢ 1948.8.15
- ㉣ 1945.12